

[실무 수습기-검찰]

## 법조인으로서의 목표설정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금석

### 양 은 영

- 1982년 11월 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 I. 들어가며

로스쿨에 입학한지도 벌써 1년 반이 흘렀다. 처음 1년 동안은 기본 3법과 후4법을 익히는데 고군분투 했었고, 2학년이 되어서야 로펌 실무수습과 검찰 실무수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검찰 일반 실무수습은 각 학교당 25%씩 인원 배정되어 각 로스쿨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일 때부터 검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검사의 직무나 생활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검찰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다. 검찰 실무수습은 총 2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첫 1주일만은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었고, 둘째 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정되어 실무를 경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II. 검찰 일반 실무수습의 과정

### 1. 법무연수원에서의 교육

법무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총 1주일로,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에서 용인까지 가는 시간이 두 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다. 출근길이 조금 고되긴 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즐겁게 다닐 수 있었다.

첫 날은 250명 전체가 소강당에 모여 입교식을 가지고 앞으로 법무연수원에서의 교육일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사합창단이 힘차고 씩씩한 합창으로 우리들을 맞아주었다. 입교식이 끝나고 각자 소속된 반으로 들어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고르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구성원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공기업에 다니다 온 원생, 전직교사였던 원생, 전직회계사였던 원생 등 사회경력이 매우 다양했고, 연령층도 30대 이상이 반 정도 되는 등 매우 높은 편이었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법무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부장검사님들이 로스쿨 원생 한명 한명에게 직접 국을 퍼 주시는 모습을 보며 검찰에서 이번 실무수습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을 하였다.

맛있게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반으로 돌아가서 [법무검찰의 조직구성]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이 수업을 통해 검찰이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조직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무엇인지, 검찰의 위계서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시간 반 동안 '8부 검사들(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사실 前 시간의 법무검찰의 조직구성수업을 들었을 때는 검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막연했지만 '8부 검사들'을 시청하면서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수레에 실어서 검사들에게 배당되는 기록의 양을 보면서 다들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난다.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는 일의 양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수의 검사들이 12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했다. 후배 검사가 일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할 때 선배검사들이 따뜻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은 힘들지만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둘째 날은 기록실습에 들어가기 전의 절차로서 '형사절차 개관 I, II' 수업이 있었다. 위 수업에서 <검사의 사건처리 절차> 및 <검사의 사건처리 유형>를 다뤘다. <검사의 사건처리 절차>에서는 사건의 수리, 사건의 배당, 검사의 결정 및 상사결재, <검사의 결정 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배웠다. 검사의 사건처리 유형에서는

공소제기, 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증지, 공소보류)에 대하여 간단한 예와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오후에는 [기록보는 법]수업을 가졌다. 위 수업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사건의 실제기록을 보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구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 시간에는 [검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반에 오셨던 검사님은 대학졸업 후 5년 동안 사기업에서 근무하다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된 여검사님이였다. 검사님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많이 나왔던 질문은 1. 로스쿨생의 검사임용방법 2. 실제검사생활 3. 여검사로서의 애로사항이었다. 검사님은 마지막으로 '일은 아주 고되고 힘들지만,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검사동료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길을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질의응답시간을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날의 일정도 마무리 되었다.

셋째 날에는 소강당에 250명이 모여 [영화 속의 검사]라는 강의를 들었다. 그간 검사와 관련되어 나왔던 영화(검사 프린세스, 부당거래, 공공의 적 등)의 주요 장면을 보여주며 실제 검사의 모습과 같은지를 알아보았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각 반에 돌아가서 실제 기록을 가지고 기록실습시간을 가졌다. 4명씩 조를 짜서 기록을 검토하고 문제를 풀었다. 고물상을 하는 아저씨가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소유자불명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4 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니 혼자서 고민했던 것 보다 많은 쟁점을 잡을 수 있었고, 결론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었다.

이 후 마지막 시간에는 일본영화인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를 시청했다.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고, 이후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그린 영화이다. 굳이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절차는 닮은 점이 많고 또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범의 정의가 실현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영화를 마지막으로 셋째 날의 일정도 종료되었다.

넷째 날의 첫 시간은 전날 쓴 사건기록의 강평시간을 가졌고, 2학년 2학기 때 들을 검찰실무과목의 소개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 날 역시 넷째 날에 쓴 사건기록의 강평시간이 있었고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이 후 검찰실무수습에 대한 설문조사 및 수료식이 있었다. 이로써 법무연수원에서의 일

주일의 일정이 끝났다.

##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수습

13개 대학에서 총 48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실무실습을 하게 되었다. 총 10개 조로 배정하여 각 조별로 지도검사가 지정되었고 각 조는 4명 내지 5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대회의실에 모였을 때 법무연수원에서 만났던 원생들과 반갑게 인사도 했는데 모두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다. 첫 날은 중앙지검에서의 실무일정 전체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이후 검찰청조직과 직무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각 부마다 고유한 담당 영역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사건 처리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검찰행정사무 소개 및 서울중앙지검 시설견학시간을 가졌다. 사건의 접수·배당·처리 및 기록과 증거물의 관리·집행사무 등 검찰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해당과별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견학을 하면서 실제 압수된 증거물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특히 흉악 범죄에 쓰인 흉기들을 보며 싸늘한 기운을 느끼기도 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담당지도 검사님과 조별로 면담을 하며,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각자 서로 다른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와서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소개를 하며 친해지려는 모습이 느껴졌다. 전공도 다르고 범조인으로서 지향하는 영역도 달랐지만 검찰에서의 실무실습을 위해 배우고 익히려는 의지가 보였다. 지도검사님도 적극적인 조원들 간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검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에 대해 조원들 각자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두 번째 날은 수사기록을 배부하고 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주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검사님이 기록검토방법과 증거수집방법 및 사실파악방법, 기소·불기소 결정의 기준, 구형 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기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을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모든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정리된 기록을 각 조서들을 첨부한 형태로 배부된 것이었다.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형법 및 형사소송법 책을 가져와서 계속 책을 뒤지는 원생도 있었고, 같은 학교에서 온 원생끼리 서로 토의해서 문제를 푸는 원생도 있었다. 주어진 시간이 적지는 않아 충분히 생각도 해 보고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고서 작성 후 실제 조사에서 녹화된 영상녹화와 CD시청을 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도검사님과 오전에 했던 수사기록 보고서에 대해 강평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도검사님은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실무수업을 수강하지 못한 점을 감

안하셔서 상세하게 사건에 대한 쟁점과 판단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각자에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셨고 기록과 관련된 사안의 적용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셨다.

세 번째 날은 두 번째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날 한 번 연습을 해서인지 주어진 시간도 짧았으나 원생 모두가 열심히 기록 작성을 하였다. 오후에는 공판기록을 검토하며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였고 (영상녹화)조사 실습 시간을 가졌다. 로스쿨 원생끼리 역할을 나누어 번갈아 모의 영상녹화조사를 하였고, 검사님이 신문방법과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마지막 시간에는 두 번째 수사기록 보고서의 강평시간을 가졌는데 지도검사님께서 전날 보다는 모두가 잘 작성했다고 하시면서 형사법 전체에 대한 질문과 지도검사님이 실제 담당하여 처리하신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네 번째 날에는 하루 종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참관하였다. 참관하기 전에 공판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듣는 시간이 있었고 바로 공판에 참관하며, 증인신문에도 참관하였다. 오전에는 법원에서 신문에 대해 참관을 하였는데 수 많은 사건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공판검사님은 계속 정리된 기록들을 들춰 보며 공소유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후에는 전날 검토한 기록에 대한 실제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공판검사님의 날카로운 신문에 대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판 과정을 보면서 조원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사건의 결론에 대해 나중에 똑같이 보자고 얘기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센터 방문을 하였다.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접하고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를 직접 볼 수 있었다. 특히 원생들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질문이 많았고 빛을 이용한 위조물과 변조물에 대한 판독 시연 과정에서 모두가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그 동안 있었던 중요 수사사례에 대하여 공안부, 특수부, 금융조사부에서 있었던 중요수사사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각 부의 검사님들이 실제 처리된 사건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도 많았던 시간이었다. 마지막에는 검찰청 및 각 로스쿨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너무 짧은 연수기간이 아쉽지만 하였다.

### III. 검찰실무실습을 끝내며

검찰에서 실무실습을 받으며 배운 점도 많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게 되었다. 우선 검사님들의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했고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사명감과 자기희생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사건 처리를 하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나아가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 관련 특별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요구되며 실제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직관력을 갖춰야 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번에 경험한 검찰실무실습은 비록 그 기간이 짧아 너무도 큰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생활과 법조인으로서의 목표설정과 방향에 대해 커다란 시금석이 된 것으로 느껴진다. 법무연수원에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검사님들과 연수원 및 검찰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